

국민 30% “코로나재유행 대비 접종 안해”

고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천병철 교수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은 올 가을이나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백신혁신센터 천병철 교수팀은 지난 5일 열린 한국고층·의학한림원·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신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성공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과 접종의향 및 관련 요인을 분석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코로

나19 백신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험률은 62.9%, 이상반응 경험 후 신고율은 15.2%로 조사됐다.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고령,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신고율이 낮았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후 조치에는 24.4%가 만족했고 47.4%는 불만족했다고 답했다. 특히 젊은층, 고학력, 고소득층에서 이상반응 신고 후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코로나 백신이 자신이나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비교

적 높았지만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정부에서 제공되는 백신의 유익성, 백신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은 낮았다.

코로나 인식 관련 설문 결과 응답자의 62.3%는 ‘코로나 백신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7.4%는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내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코로나 백신은 효과적이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1.9%에 그쳤다.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백신은 유익하다’는 답변도 39.0%에 불과했다. ‘정부, 제약회사 등 백신 제공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보는 신뢰할 만하다’는 답변도 40.7%로 집계됐다. 백신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 정부와 제약회사가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지 않아 백신 관련 정보 생성과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올해 가을 또는 겨울에 다시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접종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5.7%로 집계됐다.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30.5%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다.

연구책임자인 천병철 교수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정부제공 정보의 신뢰정도, 향후 예방접종 의향, 백신 거부 척도, 백신음모론 척도에서 연령·소득·계층·지역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백신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정책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올바르게 현재까지의 백신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백신정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환기자



나주경찰,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행사장 내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여성청소년계장, 학교전담경찰관 등 6명이 ‘안성현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행사장 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광양소방,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차량 통행이 잦은 광양항 배후단지과 국가산단이 위치한 태인동 일원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운송 및 운반 차량에 대해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여수소방, 노인 돌봄서비스 전담반 운영

여수소방서는 대경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주 남부소방, 추석 벌초 시 벌 쏘임 주의 당부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시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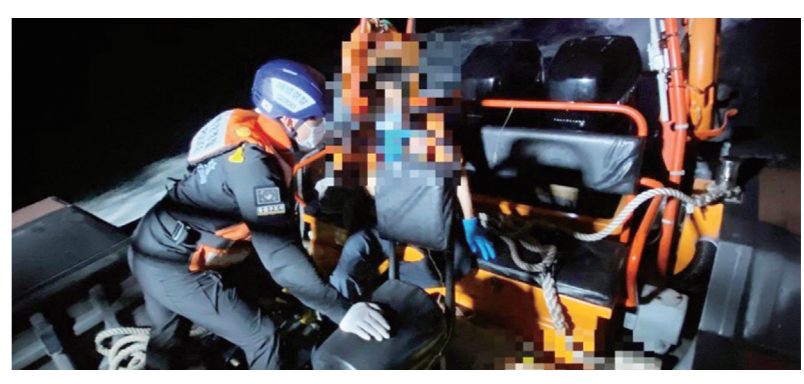
최이슬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안전점검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5일 광주 동구 전통시장인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서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및 태풍을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해경, 태풍에 배 끄긴 섬마을 응급환자 잇따라 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복상에 따라 여객선이 통제된 가운데 노화도 등에서 섬마을 환자 이송요청이 이어져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힌남노 여파’ 전국 학교 절반 등교 중단...13%는 휴업

‘원격수업’ 대구 93%·제주 90%·광주 86%

제11호 태풍 ‘힌남노’ 여파로 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절반 가량이 등교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체 학교 3곳 중 1곳 이상이 원격수업을 진행했으며, 13%는 수업을 중단하고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태풍 ‘힌남노’ 관련 학사운영 조정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7348개교(37.0%)가 원격수업을 운영, 2615개교(13.2%)가 휴업했다. 수업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총 9963개교(50.2%)가 등교를 중단한 셈이다.

또 1317개교(6.6%)가 등교나 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특히 부산(1004개교)과 경남(1684개교) 지역에서는 이날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운영 중이다.

대구(93.0%) 722개교가 원격수업 중이다. 제주(89.7%), 광주(86.0%), 경북(85.8%), 경남(79.8%), 전남(51.3%)도 관내 학교 과반수가 원격수업을 운영했다.

울산도 등교하는 학교는 이날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휴업 383개교(89.9%), 원격수업 43개교(10.1%)다.

서울도 휴업 비중이 유독 높다. 전날 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휴업을 지시했다. 중학교도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에서만 1495개교(69.8%)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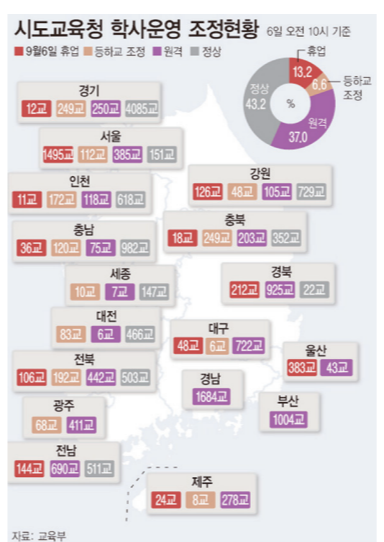
이날 휴업했다. 원격수업은 385개교(18.0%)에서 운영됐다. 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12개교(5.2%)로 집계됐다.

경북 212개교(18.3%), 전남 144개교(10.7%), 강원 126개교(12.5%), 전북 106개교(8.5%) 등 지역에서도 100개교 넘는 학교가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다.

그 외 지역별로 대구 48개교(6.2%), 충남 36개교(3.0%), 제주 24개교(7.7%), 충북 18개교(2.2%), 경기 12개교(0.3%), 인천 11개교(1.2%) 등이 휴업했다.

이날 정상 등교한 학교는 전체 43.2%인 8566개교다.

세종(89.6%), 경기(88.9%), 대전(84.0%), 충남(81.0%), 강원(72.3%), 인천(67.3%) 등에서 상당수 학교가 이날 정상 등교했다.



태풍 ‘힌남노’는 6일 오전 4시50분께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 북동쪽으로 움직여 부산을 지나 7시10분께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양돈농장 소독시설 점검 등

전남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과 함께 방역체계 강화에 나섰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럽 동남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경로는 점진적 전파가 아닌 인위적 요소로 인한 장거리 전파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신규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든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전남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지원사업과 집중 방역 홍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비롯해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5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장 소독시설과 장비 등 방역 태세를 점검하고, 도민과 귀성객을 대상으로 양돈농장 방문 자제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생태 과장은 “최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남쪽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맞는 추석이라 더욱 경계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여물지 않은 낱알’

제 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한 논에서 농민이 쓰러진 벼의 낱알을 살피고 있다.

광주지역 초·중등 원격수업용 서버 먹통

제11호 태풍 힌남노 직접영향으로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초·중학생이 이용하는 ‘e학습터’ 등 온라인 서비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학교 대부분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가정에서 ‘e학습터’ 등을 이용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온라인 접속이 중단됐다.

광주지역은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유·초·중·특수학교는 원격수업·대체휴업 전환됐으며 고등학생은 오전 10시 이후 등교로 바뀌었다.

초등 8만3000여명, 중등 4만3000여명의 학생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e학습터 등을 이용해 원격수업에 참여를 시도했지만 접속이 되지 않았다.

또 교사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서버도 접속이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반복돼 ‘수업영상’ 등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학생들은 오전부터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출근까지 미루며 시교육청 등에 전화를 하며 문의하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e학습터 서버가 다 운된 것 같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